

12명 사살한 알렉시스, 불교도로 밝혀져

미국 불교계 '충격'... '불교의 마음 치유력' 의문 제기 "미국인이 불교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 될 수도"

미국 사회는 동양의 명상을 치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6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해군 복합단지(Navy Yard) 내 한 사령부 건물에서 12명을 사살한 범인, 아론 알렉시스(Aaron Alexis·34)가 사찰에서 명상수업과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했던 '불교도'로 알려지면서 미국 불교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곳이 의회 의사당에서 1.1km, 백악관에서 5.6km 떨어진 도심 인근인데다 9·11테러 12주년이 막 지난 시점이고, 테러 당시 많은 희생자들이 명상에 참여하면서 악몽에서 벗어난 사실을 뚜렷이 각인하고 있었던 미국 사회의 충격은 더욱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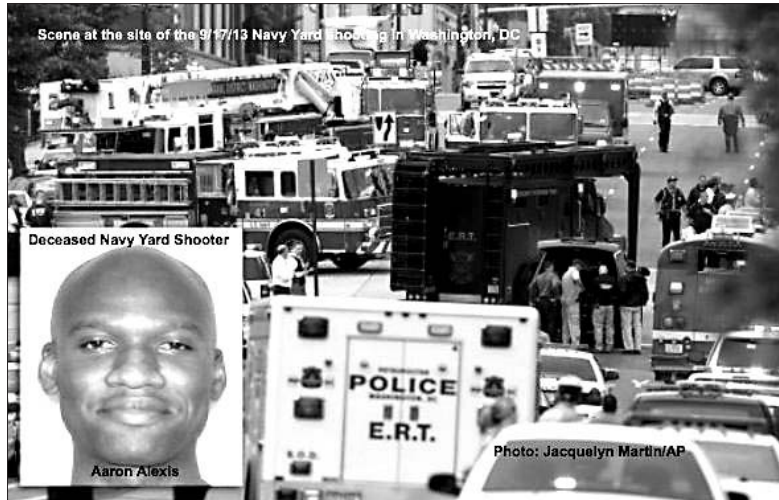
(News York Times) 지는 알렉시스 친구의 말을 인용, "알렉시스는 자신의 방에 금불상을 봉안하고, 규칙적인 명상 수련을 하면서도, 향

상 중을 지니고 있었다"고 전하고, "비폭력, 마음치유 등으로 서양인에게 각인되어 왔던 불교의 모습과 알렉시스가 추종했던 불교의 모습 사이에서, 미국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알렉시스는 포트 워드(Fort Worth) 지역의 상좌부 전통의 명상센터인 담마바나람(dhammadanaram)의 정회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미 연방수사국은 담마바나람 명상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카셈 펀디스토(Kasem Pundisto) 스님의 말을 인용, "2010년부터 센터의 명상수업과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했지만, 최근 1년간 그의 신행 활동은 지난 2년과 비교해 활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음주 후 명상센터를 찾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저스틴 휘테커(Justin Whitaker·불교유리) 박사는 "불



알렉시스(사진 아래)는 9월 16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해군 복합단지 내 사령부 건물에서 12명을 사살했다. 그는 명상수업과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한 불자로 알려지며 미국 불교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교 공부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게 전통"이라고 전제하고 "알렉시스는 처음 대중과 함께 명상에 임문했지만, 점차 홀로 하는 명상에 심취된 듯하다"며 "명상의 보편적인 가치에 반한 행위를 저지른 알렉시스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홀로 하는 명상은 윤리적 치유적 효과가 적다"고 설명했다.

저스틴 박사는 "치유의 과정은 자신에게 함몰되는 게 아닌 자신을 객관화 하고 주변과 통섭하는 데 있다"는 게 관련 연구자들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전제한 찰스 존스(Charles Jones, Catholic University)교수는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가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리 치료사 중에는 독실한 불자이거나, 불자가 아니더라도 불교를 깊이 공부한 이들이 여전히 많고, 그 효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 미국 불교계는 이번 충격을 잘 극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800년대 아시아 이민자들에 의해 태동되기 시작한 미국불교는 1990년대 이후 잭 케로악(Jack Kerouac) 등, 정부와 사회를 비판하고 전쟁을 반대했던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헐리우드 스타 등 유명인들이 불교로 개종하면서 '야망'에 찬 미국 사회를 치유할 '건강한 대안'으로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불교는 서양의 심리학과 공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검증되기 시작하면서 '치유의 방법론'으로 각광 받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호주 관광도시서 불교식 채식뷔페 '인기'

경매 수익금으로 '명상 실수' 등 프로그램 운영



롭상 콘축(Lobsang Konchok) 스님이 직접 그린 불화를 들고 있다.

호주 멜버른의 관광도시 토키스콧(Bec Plascott) 씨는 "롭상 스님은 티벳 망명정부의 지원을 받아 땅가 교육 과정을 모두 밟은 전문 작가"라며 "사원에서 마련한 저녁 만찬에서 불교 채식을 맛보며, 티벳 불화 장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매체 <크로니클> 지에 따르면 카초드링 다키니(Khachodling Dakini) 사원은 자신들의 서원 실천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채식 뷔페와 미술품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경매에 선보이는 불교미술 작품은 카초드링 다키니 사원에 주석한 스님이자 유명 불화 장인인 롱상 콘축(Lobsang Konchok) 스님의 탕카와 붓글씨다. 경매 진행을 맡고 있는 벡 프레

스콧(Bec Plascott) 씨는 "롭상 스님은 티벳 망명정부의 지원을 받아 땅가 교육 과정을 모두 밟은 전문 작가"라며 "사원에서 마련한 저녁 만찬에서 불교 채식을 맛보며, 티벳 불화 장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초드링 다키니 사원은 재정 보수와 자원봉사에 힘입어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롱상 스님은 "경매 수익금은 사원을 찾아오는 이들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명상 수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클로니클> 지에 따르면, 카초드링 다키니 사원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아우슈비츠서의 명상수련, 소설로 만난다

美 유명작가 피터 패티슨, 명상 경험 깃든 소설 출간

아우슈비츠에서의 명상수련을 소재로 한 책이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피터 패티슨(Peter Matthiessen)의 <파라다이스에서(In Paradise)>라는 소설이 그 주인공이다.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삼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명상수련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1주일간의 명상을 통해 당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이들의 분노와 슬픔을 시간여행을 하듯 공감한다는 내용이다.

소설가와 논픽션 작가로 유명한 피터 패티슨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세간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올해 87세인 피터 패티슨은 명상지도자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그간 깊이 있는 내면을 담은 책을 발표해왔다. 전미도서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기도 했다.

새 소설은 '선 평화만들기 프로젝트(Zen Peacemakers Project)'가 매년 2차 대전 강제수용소에서 주회

하는 명상수련 프로그램인 '증인자들(Bearing Witness)'에 패티슨이 참가한 경험을 토대로 쓰여졌다. 수용소에서 견기명상을 하고 화장터에서 밤샘기도를 하는 등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올해 명상은 11월에 열린다. 겨울추위 속에서 참담했던 당시를 피부로 느끼기 위함이다.

1927년에 태어나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1954년에 작가로 데뷔한 피터 패티슨은 지금까지 약 24권의 책을 썼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폭력, 인종차별 등을 사실대로 보여준 <그림자 나라(Shadow Country)>



겨울의 아우슈비츠는 춥고 쓸쓸스럽다. 이곳에서 자행된 끔찍한 사건을 되새기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명상수련이 1년마다 열린다(사진 왼쪽). 이를 소재로 미국의 저명한 작가 피터 패티슨(사진 오른쪽)이 쓴 소설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

로 2008년 전미도서상을, <눈 표범(The Snow Leopard)>으로 1979년 전미도서상을 수상했다. <눈 표범>은 <신의 산으로 떠난 여행>으로 국내에 출판되었으며, 눈 표범을 찾아 네팔 트레킹에 나섰던 작가의 영



배편진 기자 linus@hyunbul.com

적 순례기로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자연, 불교에 대한 답을 추구한 수작이다.

패티슨의 새 소설은 2014년 봄에 만날 수 있다.



축제 때 선보일 '연꽃 군무'를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계 아이들

美 플로리다 베이 카운티 불심 키우는 '관 암 남 하이'

첫 가을 축제 열고 ... 13피트 석불 선보여

미국 플로리다 콜러웨이(Calloway)의 베트남계 사원에서 준비하는 가을 축제(Mid-Autumn Festival)가 화제다.

<뉴스 헤럴드(News Herald)> 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베이 카운티

(Bay County)의 콜러웨이 스타(Star) 거리에 개원된 관 암 남 하이(Quan Am Nam Hai) 사원이 첫 축제를 마련한다.

트랜(Master Tran, 관 암 남 하이 사 주지) 스님은 "베트남에 가을

초입 때가 되면 항상 추수를 감사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축제가 이곳에서 열렸다"며 "이번 첫 축제에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새로운 세대들이 베트남의 유산을 잊지 않고 지켜내길 바라는 앞선 세대의 서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사원 측에 따르면, 축제가 진행되

는 동안 대중 스님들은 아이들 손마다 연등을 쥐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원하는가하면, 자원 봉사자들은 사원 곳곳에서 베트남 전통 음식을 방문자들에게 선보이는 코너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무게 12톤, 높이 13피트에 달하는 부처님 봉안 법회도 봉행한다. 화강암으로 제작된 부처님 석상은 지난해 2월 사원 개원에 산파 역할을 했던 톱 톱 투(Thich

Tinh Tu) 스님의 발원으로 가능했다.

관 암 남 하이 사원의 첫 축제 준비위원장인 마사 홀(Marsha Hall, Rutherford High School 교사) 씨는 "작은 집에서 시작된 여정이 16개월 만에 야외 부처님을 봉안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이곳은 피부색을 넘어선 '평온한 안식처'로서 지역 주민들의 각광 받고 있어, 앞으로 지역에서의 사원

위상은 더욱 커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트랜 스님은 "대중 스님들은 사원을 방문한 사람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이 그 원력으로 삶의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관 암 남 하이 사원은 플로리다 베이 카운티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패드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자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견조기, 오추배개등 자매품다양)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